

#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신석하 KDI거시금융연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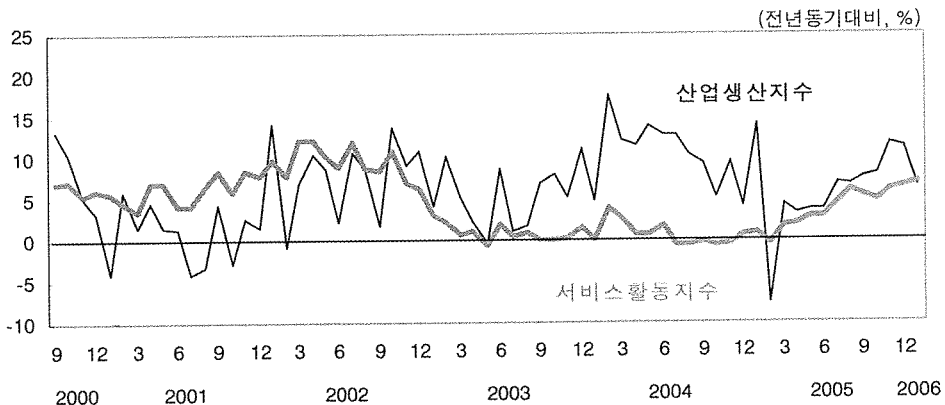
## 1. 전반적인 경기 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견실한 성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소비와 연관이 높은 운수장비투자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수출이 원화까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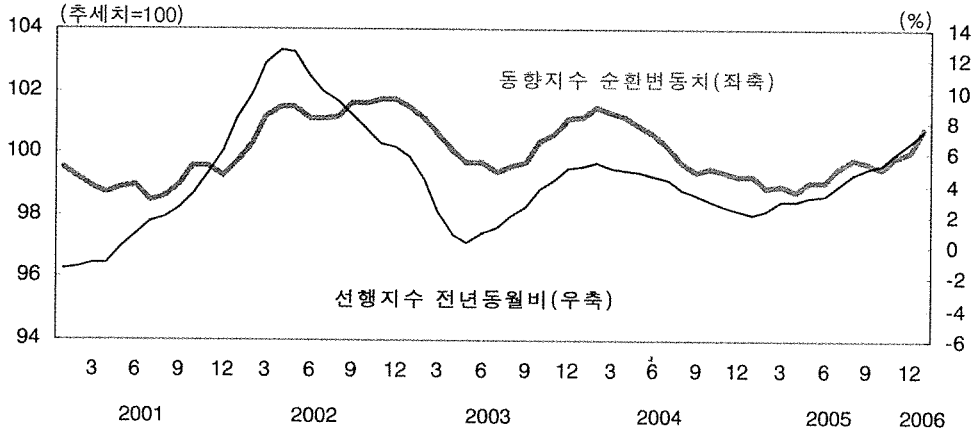
경기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실업률의 하락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고용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산업생산은 1월중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설날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차이를 고려한 일평균 생산지수는 12.2%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재고의 순환도 조업일수 차이에 기인하여 불규칙

산업생산 및 서비스 생산 추이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한 모습을 보였으나, 조업일수를 감안할 경우 경기상승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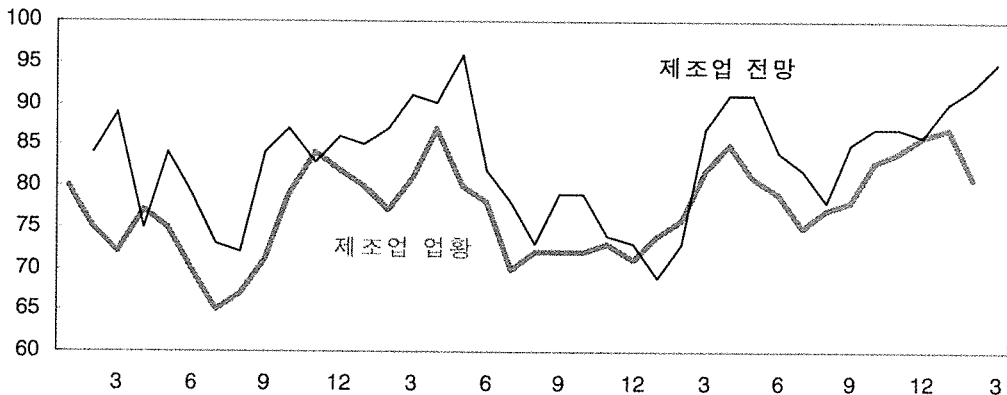
1월중 서비스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하여 2005년 3월 이후 증가세가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며,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전월대비 0.4%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1월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8을 기록하여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2005년 2월 이후 꾸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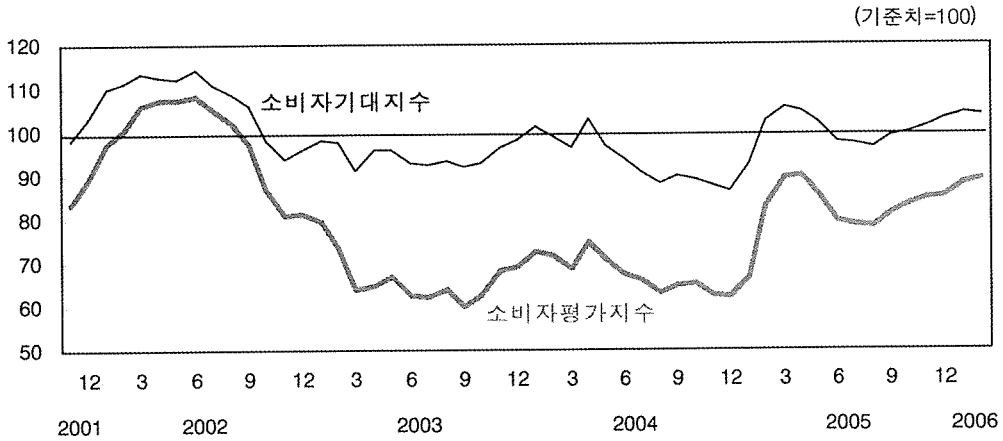
증가하여 경기상승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2월중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전월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으나, 전망치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경기회복 지속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2월중 한국은행의 제조업 업황 BSI는 81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3월 전망 BSI는 전월에 비해 크게 상승한 95를 기록하였다. 전경련 BSI도 계절조정 기준으로 95.4를 기록하여

기업경기실사지수 (한국은행)



소비자평가지수 및 소비자기대지수 (한국은행)



전월에 비해 다소 부진하였으며 3월 전망치도 전월에 비해 다소 하락한 104.5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100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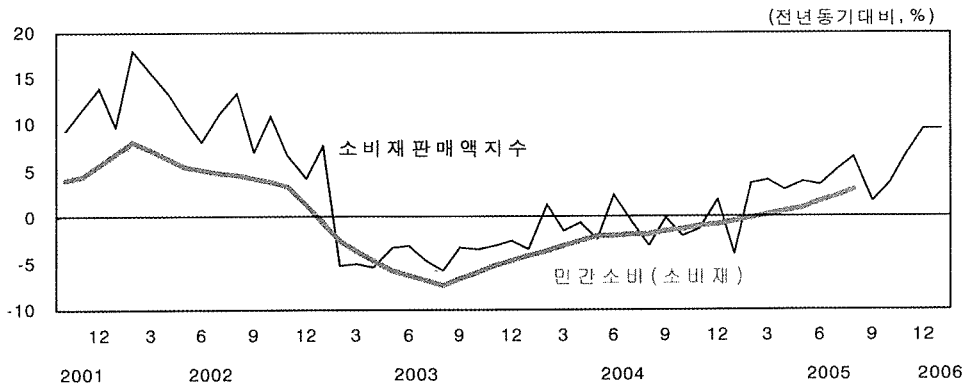
또한 2월중 소비자 평가지수는 89.0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소비자 기대지수는 103.8을 기록하여 소폭 하락하였으나 5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어 소비자 심

리가 호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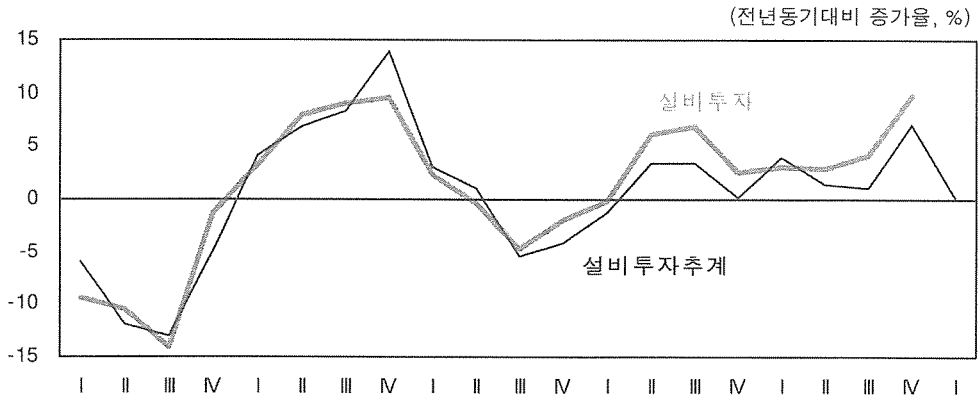
## II. 부문별 동향 및 평가

소비 관련지표들은 1월중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재 판매액지수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증가하여 전월과 비슷한 전년동월대비 9.4%의 증가

민간소비와 소비재 판매액지수 변화추이



설비투자과 설비투자추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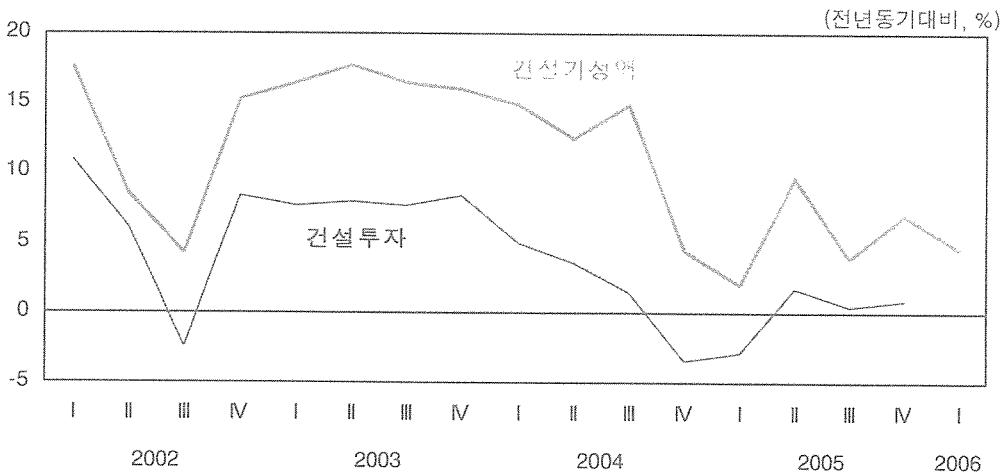


율을 기록하였다.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는 3.9% 하락하였으나, 이는 자동차 특소세 환원에 따른 작년 말의 자동차 판매급등 및 1월의 반사적 하락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월중 설비투자 관련지표들의 증가율이 하락하였으나, 조업일수 차이·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설비투자의 완만한 개선추세가 지

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월중 설비투자추계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0.2%를 기록하여 전월의 12.6%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는 설 명절 시점 차이에 따른 조업일수의 감소, 작년 1월의 특수산업용기계의 높은 투자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도 1월중 전년동월대비 2.0%의 증가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액의 추이



건설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비중 <sup>1)</sup>	2003	2004	2005							2006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건설투자	1.00	7.6	1.1	0.3	-2.9	1.7	0.4	0.9	-	-	-	-
(계절조정)	-	-	-	-	(-0.8)	(4.4)	(-2.0)	(-0.5)	-	-	-	-
건물건설	0.61	14.4	2.0	-	-6.2	1.8	0.4	-	-	-	-	-
토목건설	0.39	-1.5	-0.1	-	4.0	1.6	0.5	-	-	-	-	-
디플레이터	-	6.9	6.4	-	5.1	3.6	3.3	-	-	-	-	-
건설기성액 <sup>2)</sup>	1.00	16.6	11.1	5.7	1.9	9.6	3.8	6.9	11.3	6.5	4.6	
공공부문	0.33	10.7	4.9	-1.0	-1.0	3.1	-6.6	0.4	-2.4	5.2	-5.5	
민간부문	0.64	20.6	14.8	8.7	3.1	13.0	8.5	9.2	17.5	5.5	9.1	
국내건설수주	1.00	19.3	-3.9	9.5	22.3	38.5	15.8	-17.9	3.2	-17.0	10.9	
공공부문	0.29	0.9	13.5	1.6	22.2	73.7	0.0	-26.3	1.6	-20.1	-32.1	
민간부문	0.66	27.6	-11.6	16.2	18.3	30.9	29.1	-5.8	3.8	-3.6	38.8	
건축허가면적	1.00	2.4	-17.3	-5.1	0.2	-1.0	-11.0	-8.2	-14.3	-8.0	2.6	
주거용	0.43	8.4	-19.4	0.4	27.6	8.6	-4.7	-14.0	-1.8	-17.7	-0.1	
상업용	0.26	-8.1	-32.4	-24.5	-30.8	-29.1	-25.7	-8.2	-26.4	18.6	12.2	
공업용	0.13	-4.1	0.0	-7.9	-18.1	16.3	-21.5	-5.5	-33.5	3.2	16.4	

주: 1) 비중은 2004년 연간 기준임.

2) 건설기성액과 국내건설수주의 증가율은 명목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건설교통부,

율을 기록하여 전월(42.8%)에 비해 크게 증가 폭이 축소되었으나,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수장비투자는 2005년 7월 이후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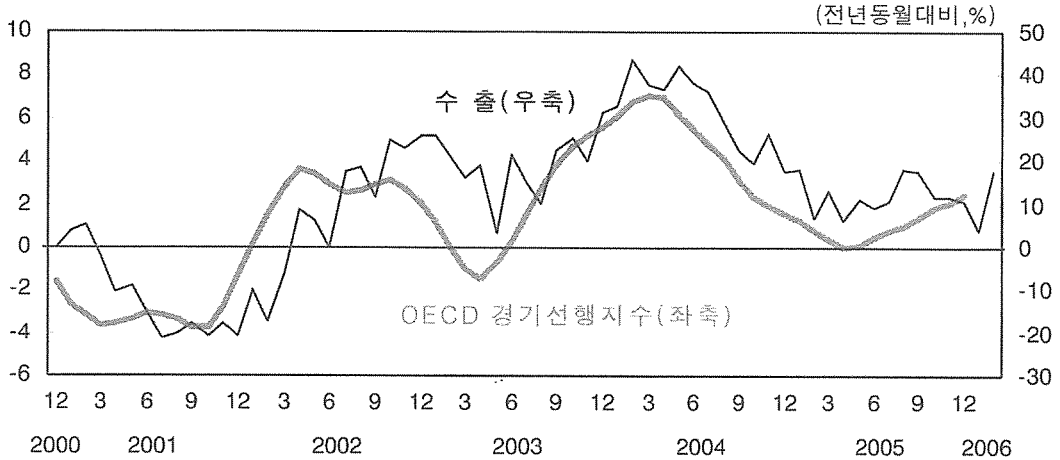
건설투자의 경우 선행지표들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동행지표들은 전월보다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1월중 건설기성액은 민간부문 공사실적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하여 전월(6.5%)보다 다소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1월중 민간부문 및 건축부문의 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월의 감소(-17.0%)에서 10.9%의 증가로 전

환하였다.

수출은 2월중 원화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건설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1·2월중 수출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조업일수의 변동으로 크게 등락하였으나,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는 12월 10.5%, 1월 10.4%, 2월 10.9%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우리 수출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OECD경기선행지수는 증가세를 지속하여 수출증가세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1월중 취업자수 증가율은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며, 실업률도 하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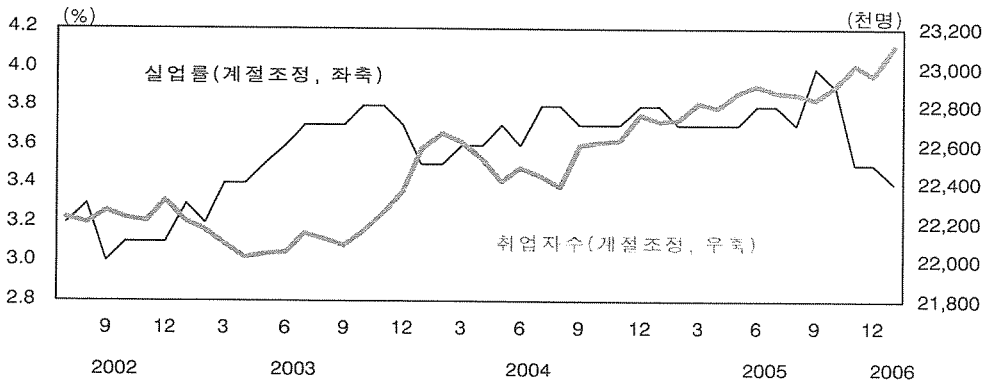
OECD 경기선행지수와 우리 수출



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이 전월에 비해 0.9%p 상승하는 한편 계절조정 고용률도 전월대비 0.4%p 상승하였다. 실업률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로는 0.5%p 하락하였으며, 계절조정기준으로도 전월대비 0.1%p 하락한 3.4%를 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월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각각 전월대비 0.2% 상승에 그쳤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 근원물가 상승률이 1.7%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계절조정 실업률 및 계절조정 취업자수



지 물가상승압력은 높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 분당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전월보다 다소 확대되었으며, 아파트 전세가격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월대비 0.6% 상승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 III. 대내외 경제여건

미국경제는 태풍 피해 및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관련 지표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관련 지표들도 과거에 비해 부진한 모습이다. 그러나 고용은 증가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상반기에 태풍피해 복구가 본격화되면 성장세를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민간소비의 증가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경제는 1월 중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수출도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개선되고 있어 향후에도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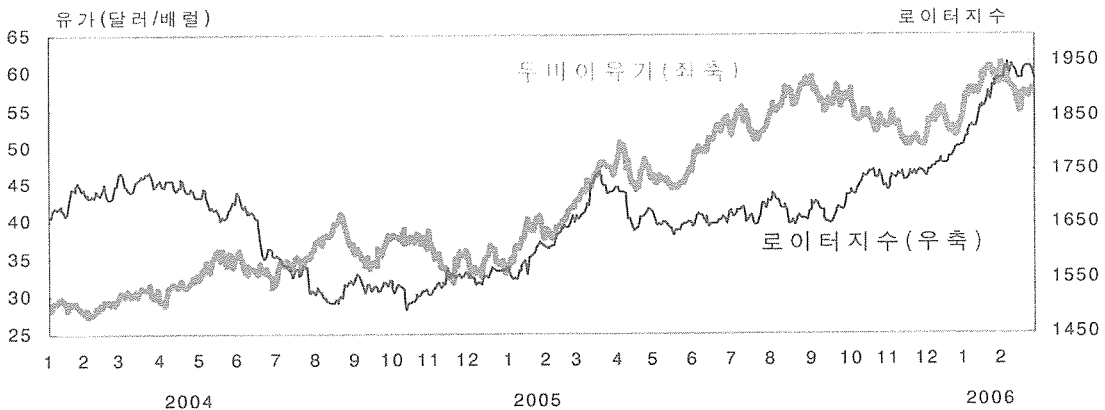
유로경제의 경우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나, 산유국의 구매력 증가에 따라 최근 수출이 10%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체감지수와 제조업 구매자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경제는 소비, 고정자산투자 등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높은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의 상승 폭은 다소 확대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공급차질과 정정불안으로 인해 급등하였으나, 이후 미국 석유재고 증가 및 세계 석유수요 예측치 하향 조정 등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다. 원유이외 원자재가격은 2월중 농산물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2월중 달러화가치는 연방준비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상대적으로 견실한 미국경제의 성장세로 강세를 보였으며, 2월중 원/달러 환율은 작년 말 이후 지속되던 급락세가 다소 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추이



정되는 모습이다.

#### IV. 향후 전망

우리경제는 2006년에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가 회복되면서 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5%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4%대 후반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하반기 성장률 격차는 상당 부분 전년 동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는 연중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소득 증가, 고용여건 개선, 환율 하락 등에 기인하여 2006년에 4%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도 소비와 서비스부문의 지속적인 회복에 따라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어 7%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건설투자는 2006년에 BTL 및 기업도시 등의 영향으로 2005년보다 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지만 여전히 1%대의 낮은 증

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수출(물량)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IT 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기인하여 증가율이 2005년(9.7%)보다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상품수입(물량)은 내수회복, 환율 하락, 유가상승 등에 기인하여 2005년보다 크게 상승한 12%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경기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2005년(3.8%)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시차를 두고 경기상황에 반응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2006년 하반기 실업률이 상반기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상승률이 2005년(2.7%)보다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내수회복, 환율 하락, 유가상승으로 인해 상품수입(금액) 증가세가 상품수출(금액) 증가세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가 2005년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 적자도 확대될 전망이다.